

아메리칸드림 넘어 '하나님 나라' 를 향하여

/ 사람, 사람들 /

김현영 선교사 (수의대 58)



김현영 동문은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33년간 수의병리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온 가족이 전문인으로 자리잡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가정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령적 은혜로 연령 제한도 없는 안정된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 넘어 '킹덤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마을에서 아내(이덕주 선교사)와 함께 부부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한 평생을 헌신한 그의 인생길을 동문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에서 강연중인 김 선교사와 경청하는 학생들.

-서울 수의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중고등학교 (서울사대부중고) 시절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창의성, 비전, 개척자 정신 등 좋은 미래적 교육을 받았다. 그러한 창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젓소 낙농산업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당시 한국에는 목장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그 넓은 푸른 목야에서 100여 마리의 홀스타인 젓소들이 함께 평화스럽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풍경 또한 착유실에서 기계를 이용, 자동으로 우유를 착유하는 모습, 그리고 젓소에게 청진기를 들이대며 진찰하는 수의사의 모습들은 나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꿈을 갖게 하여 주었다.

수의대 재학중에는 롤모델인 스코필드박사를 스승으로 만났다. 수의대를 졸업후 현재까지 58년간 오로지 낙농동물 수의학 전문인으로 살아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 미국에 유학오신 계기는?

고등학교와 대학시절부터 미국 유학은 인생의 목표중 하나가 될 정도로 꿈이었고 더우기 수의대 입학 후 미국의 낙농동물 수의학에 더욱 관심이 많아져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유학은 기대이상으로 자랑스런 수의학 전문인으로 키워 주었다. 조지아대학(UGA)에서는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첨단 연구시설에서 미국인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며 새로운 국제적 감각과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UPenn)에서는 세계적 수의학 전문인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동시에 미

국 수의사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시험에 합격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 연구관 공무원으로 뽑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의과대학 대동물 캠퍼스는 Kennett Square에 700 Acres에 이르는 광대한 땅위에 세계적 연구단지를 갖고 있다. 연구용 젓소들 많은 대동물들이 실험목장에서 키워

을 줍니다"라고 적혀 있다. Schofield 스승께서 제자에게 뿌린 선진적 수의학과 하나님의 박애 정신을 거쳐씨가 미국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 제3국 과테말라에 가서 다시 씨를 뿌리는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14년간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학의 초빙교수로서 또한 수의과 의료 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의사에서 선교사로 직업을 비꾼것이 아니고 아직도 수의학 전문인으로 수의과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발전된 것이다. 수의과대학 시절 캐나다 선교사이며 세계적 수의병리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를 수의병리학 스승으로 만나 그때 부터 농촌개발 선교사역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의 나이 70세에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에서 은퇴 하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할 시기에 곧 이어 1958년 한국에 두번째로 입국 하셨다. 그는 82세까지 그의 생애 마지막 12년을 교수로서 또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한국을 기독교적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셨다. 가장 뜻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되시고 사랑하던 한국땅 동작동 국립 묘지에 안장 되셨다.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 선교사로 사역하시며 3.1운동 잔학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후 3.1운동 민족대표 제34인으로 칭송받았다)

안정된 수의 연구관 공무원 버리고 과테말라 농촌 사역

산칼로스대 교수 임명, 사재 털어 젓소 질병연구소 설치

"영어 성경 제자훈련 등 아내의 내조, 사역활동에 큰 힘"

지고 첨단 연구시설물이 있는 곳이다. 당시 유럽, 남아공등 세계 수의과학자들이 유학 와서 연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선진국 수의학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 지난 2013년 자랑스런 서울대 수의대인상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로서 지켜온 사명이나 뜻이 있다면?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에 있을때 상을 수상하라고 수의대로 부터 초청을 받았다. 상패 내용에는, "귀하는 대학시절의 회생적이고 봉사정신이 높은 스코필드박사를 존경, 그를 롤모델로 삼아 젊어서는 미국 수의 연구소에서 수의전문인으로 봉사하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과테말라에서 수의과 의료 선교사로 우수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어 상

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스코필드가 서울 수의대에서 손수 행하였던 사역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의대 장한상을 받은지 6개월 후인 2014년 4월11일에는 서울대 주최 "스코필드박사 추모기념 심포지엄"에 주강사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오연찬 서울대 총장의 기념사, 정운찬 전총리의 격려사, 이종찬 전국정원장의 "스코필드박사의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는등 귀중한 자리였다. 그때 나의 강연제목은, "Dr. Frank Schofield: A Scholar and Missionary, Spreading His Spirits in Guatemala"이었다.

- 수의사로 활동하다 선교활동을 시작하신

- 과테말라 선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지난 14년간 산칼로스 국립대를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 사역할때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시 맞춤형 전문인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협력선교단이 만들어져 현재 대학캠퍼스 사역, 농촌개발사역, 의료사역 등 3분야로 나뉘어져 각분야대로 독립적으로 그러나 연합하며 사역하고 있다 (고전12:12).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 초빙교수로 임명받은 후 사재를 털어 값비싼 새로운 진단기구들을 구입해 그 대학에 작은 젓소 질병